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1 차 세션, 예수의 그림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예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요한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이 세션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옛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영이 우리를 밝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네 번째 복음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스타일, 구조, 목적, 나는 말씀, 표적, 시간 말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응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림, 즉 그리스도론적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속죄를 포함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큰 그의 구원 사역의 그림을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서론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7. 다시 말해서, 사물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말씀과 빛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인 예수와 그의 칭호를 처음 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일부가 된 것으로, 그리스도 또는 기름부음받은 자 또는 메시아인 듯합니다. 그리스도, 그는 약속된 자입니다.

구약성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매우 드물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많은 구약성서 주제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후기와 빛의 이미지를 봅니다.

태양은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론적 칭호 중 하나, 하나님의 아들 또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1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첫 번째 장의 45절에서, 예수에 대한 간증들, 세례자 요한 이후의 예수에 대한 다른 간증들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 안드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43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빌립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샤타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분을 찾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없지만 정확히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기 그 아이디어, 메시아적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구약성서는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 와서 생명을 얻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구나. 너희는 모세를 신뢰하노라. 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만약 당신이 그의 글의 정신과 텔로스, 그의 글의 목표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 19-22, 우리도 이것을 전에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 소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 무슨 표적을 보여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2:19,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만약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면, 아니면 아마도 여인의 뜰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가 그 구조물을 헐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친 짓 같고, 거칠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확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 치하에서 그동안 계속된 보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울 것입니까? 여기에 요한의 편집자 코멘트가 나오고, 물론 그들은 오해하지만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대체하고, 더 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대체하시고, 많은 구약성경 참조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관들, 여기, 사원. 그는 진정한 사원입니다. 그의 몸은 진정한 사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었고, 생략부호를 붙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성취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참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다. 그의 메시아직은

그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주요 기관들을 성취하고 대체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도. 그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들, 믿음의 연합으로,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은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4:12 우물가의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가요? 그는 우리에게 우물을 주고 직접 마셨고,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유명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독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가 야곱보다 더 크신가요? 그는 야곱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주님이시요, 그는 신이시요. 물론, 그는 야곱보다 더 크시죠.

이것은 요한이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 사용한 기법 중 하나이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긍정하는 데 약간의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요한과는 매우 다른 관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또한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다.

5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는 이미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갑니다.

구약성서는 예수님에 관해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약속된 자라는 개념은 여러 번 사용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47, 하지만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제사 제도 전체를 주면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수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게리심 산을 시카르산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럽네요.

Sychar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입니다. Gerizim이 맞는 단어입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는 잠깐만요, Gerizim은 율법에서 저주 와 축복을 선언할 때 악의 반대편에 놓이는 단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에 나오는 Gerizim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산의 이름은 시카르가 아닙니다. 도시의 이름은 시카르인데, 요한복음 4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산의 이름은 거기에 없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곳인 게리심 산입니다.

요한복음 8:58, 예수는 유대인들과 싸운다. 오, 나의 말씀. 오, 나의 말씀.
.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너희는 그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곧 불을 낮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적 부도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태오와 누가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동정녀 임태를 가르칩니다. 전통적으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불립니다. 마리아는 이것으로 인해 약간의 낙인을 받았고, 여기에 그것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모욕처럼 들립니다. 다시 말해, 불트만은 틀렸습니다. 신약은 천사가 상자에서 튀어나오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 시골뜨기 무리가 쓴 것이 아닙니다.

오, 그들은 12개나 되는 놈들이야. 아니, 그들은 12개나 되는 놈들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믿지 않았어. 우리는 당신처럼 성적 부도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왔고,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의 뜻은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아담과 이브가 이브를 유혹하여 이브에게 죽음을 가져온 타락과 그녀의 남편이 죄에 가담한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선악의 지식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성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혈통을 보여주며, 그들은 아브람의 자식이 아니다.

오,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와 행동, 태도, 말을 닮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중 누가 나에게 죄를 확신시키나요? 저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원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권하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원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우.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사마리아인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당신은 나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심판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처럼 죽었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가요? 여기서도, 기독교 독자는 ”물론이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는 내 아버지요,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그를 아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으며, 그의 말을 지킵니다.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돌을 집어서 그에게 던졌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때리고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이전 계시에 근거하여 줄 사이를 읽어보면 그들은 돌을 집어서 그에게 던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주장이다. 네 번째 복음서의 학자들은 이것이 유명한 '나는 있다' 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거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제, 경향은 그것을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후자의 말씀,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등등,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것은 분명히 신에 대한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데에서 그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희미하게 멀리서 그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실 약속된 자 안에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그 약속된 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구세주이며,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2 :1에서 11까지, 그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의 신랑이며, 결혼식을 위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하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는 물 정화 항아리와 그와 함께 하는 의식으로 상징되는 유대교를 대체합니다 .

그는 그것을 무효화하고, 대체하고, 확장하고, 자신의 인격과 일로 대체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가져오고, 사실상 그것은 일시적으로 오래된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내듯이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3:16-18,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는 구세주라. 여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산문으로 쓰여 있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나빠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빛을 없애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상기시키듯이, 그분은 아들보다 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성경적 은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출하고 그 반대인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이는 질적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7:3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이생에서 시작되고, 죽은 자의 부활에서 더 깊고, 놀랍고, 더 위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을 위한 양적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받고 부활한 백성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새 땅에서 그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비난은 부산물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비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간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나 복음,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현된 종말론, 18절의 마지막 것들의 이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정죄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정당화된 최후의 심판에서의 판결에 대한 진실하고, 타당하고, 정확한 예측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결을 알 수 있습니다. 정죄 없음, 로마서 8:1. 요한복음 3:18.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무자비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들이 그 비통한 말씀,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에서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거친 바다에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구해 내는 구세주입니다.

그는 그들을 구해냈고, 분명히 배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그는 구세주입니다. 그 표지판이 보여주듯이요. 그는 구세주입니다.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구세주가 하는 일이니라. 그는 구원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장, 9장은 그가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 즉 문으로서의 구세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길입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14:6입니다. 일곱 가지 “나는” 말씀이 있지만, 다른 의미는 세 가지뿐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바로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의 천상 집이라는 그림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수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는 그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유일한 구세주이다. 요한복음 21:14.

우리가 누가복음 5장과 물고기의 기적적인 포획과 그에 따른 단어들을 비추어 이 글을 읽는다면, 요한이 그것이 예수임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봄, 큰 물고기를 잡자마자 그들은 물고기의 양 때문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6.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누가복음 5장과 독자를 기억합니다. 요한이 종종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누가복음 5장에 쓴 것을 기억해야 하며, 거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한이 부르는 대로 주님이다.

그는 죽고 부활합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 후입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의 구원 사역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20장에서 그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받는 믿음이나 불신의 반응에 따라

죄를 잊고 묶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들은 그의 하인, 그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된 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구원자, 죄의 구원자입니다. 아주 심오하게, 그는 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안에만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시자는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로고스 안의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로고스 안의 영원한 생명,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객관적이고, 속격적이고,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육신 이전의 말씀이 계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말씀이 계시자라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지금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4,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잠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단어, 문장, 메시지는 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격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영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계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벽한 문맥화입니다.

그는 계시입니다. 성육신은 계시입니다. 육신이 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오, 그는 그 이상이지만, 그 이하도 아닙니다. 1:9,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의 기적, 표적을 보거나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1:18,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시작에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있습니다. 1:1, 그는 말씀입니다.

1:18,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9:5,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영은 예수님의 분신, 성령이며, 그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그가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고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즉, 나는 내 성격, 내 말, 내 행동으로 인간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4:6, 나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는 전에 없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12:49와 50,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표적의 책은 예수가 신을 계시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 차 있다. 12:49과 50, 나는 내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명령하여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주셨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성육신 한 아들이 그분의 계시자가 되도록 정하셨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 계명이 영생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은 영생이며 요한 1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요한 1서의 평행을 보여주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휘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평행이 많지만, 요한복음만으로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루기에 충분할 겁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그림들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구세주입니다. 그는 계시자입니다.

그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서론에서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주요 참조는 아니지만,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외아들로서의 그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표적인 2:11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2:11은 나쁜 참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유일한 참조라면 괜찮지만, 더 이상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17과 18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5:16). 문맥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5:16).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나중에 탈무드에서 나온 말은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질문인 “하나님께서 토요일을 쉬시는가?”를 다루면서 숙고하신 내용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 죽음에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 그리고 섭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진보적인 사상이 존재하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는 스캔들 같은 언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표적과 실제로 자신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동등하게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5:18에서 말하는 18절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고, 더욱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해 한 것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한 방식으로,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로는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가 신을 그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는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전능하신 신의 일이다.

예수는 이렇게 자신을 신의 신성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11. 4. 누가 죄를 지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눈먼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11장.

나사로가 병들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전갈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랬듯이 그가 죽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것에 대해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바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끓어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가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왔습니다. 17. 1.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여기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영광을 받다라는 반복을 주목하세요. 11:25-27. 위대한 나는 진술입니다.

나는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압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25, 유명한 장례식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20:30과 31에 나오는 목적 진술에서 나중에 언급될 내용을 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선재성을 암시하고 세상에 오는 언어로 그가 성육신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슬프게도, 그의 아들됨은 시련에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은 요한복음 19:16-27과 그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공관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17에서 그대로 보자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 계시자, 아들, 생명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서론 1-3에서 창조의 생명 주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고, 1-12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줍니다. 그는 6-35절에서 생명의 빵입니다. 그는 10:11과 10:28절에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11:25.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14:6. 그는 가지에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이시요 15:1.

거듭거듭,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4-46-54년에 귀족의 아들을 고쳐 죽음이 임박한 그 소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눈먼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요한복음 6장 1-15절에서 군중과 빵과 물고기를 먹이면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는 죽은 친구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주요 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주제는 중요하지만, 주요 그리스도론적 주제, 대부분의 표징의 의미, 그리고 대부분의 I Am의

의미는 그가 생명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는 그가 계시자라는 사실이 있지만,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이 계시하는 것은 그가 생명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속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드러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세상을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의 죽음과 그것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영생을 베푸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베푸십니다. 그는 인자이시며, 15:1,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야곱의 사다리를 대신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13~15.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특히 9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리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기둥 위에 청동 뱀을 들어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모든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맥락을 기억하세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너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 네가 모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해, 에스겔 36장.

강한 말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말했을 때,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즉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보는 사람의 아들만이 알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요한복음 3:13, 14 이제,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모세는 뱀을 기둥 위에 들어올렸습니다. 놋뱀, 그것을 바라보고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치명적인 뱀에게 물리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기둥 위에 세워진 뱀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뱀이라는 점에서 구세주, 즉 사람의 아들의 행동에 대한 예고이자 유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듯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칭호, 즉 사람의 아들과 구세주가 합쳐지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자, 즉 아버지의 계시자입니다.

요한은 이런 칭호들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실제로 사용된 칭호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들어올려질 것이다.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한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들, 구세주, 계시자, 생명을 주는 자의 승영이라는 원형의 예표입니다. 653,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연약하고 필멸의 인간의 아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무엇이며, 당신이 그를 돌보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천체, 별 등에 비유됩니다. 연약하고 필멸의 인간. 그것은 또한 인간이었던 에제키엘이 가장 좋아하는 신의 칭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다니엘의 인자는 높여지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신적-인간적 인물입니다. 네 복음서를 모두 합치면, 예수님은 시편 8편의 연약하고 필멸적인 사람처럼 들리는 인자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는

등지가 있고 여우는 콜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특히 그는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영광의 구름과 함께 다시 올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자.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신인 인간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신이 보내신 그를 믿지 않는 한, 그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미 9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칩니다. 이전에 눈먼 사람은 예수의 손 안에서 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주님,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의 의미이고, 이전에 눈먼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그림에 대한 잠깐의 조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구세주, 계시자, 신의 아들, 생명을 주는 자, 그리고 인간의 아들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아마도 네 번째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 그림일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림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1, 예수의 그림입니다.